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0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비만치료제가 바꾼
소비 트렌드
고영양·소용량
L1

33개 이색요리
구미라면축제
40만명 몰렸다
L2



1분당 600개 '척척'… K-라면, 첨단 시스템 타고 세계로

르포 | 글로벌 수출 전용 생산기지 '농심 녹산공장'

유리 너머 거대한 롤러 사이를 쉴 새 없이 통과하며 매끄럽게 펼쳐지는 하얀 반죽이 장관을 이룬다. 꼬불꼬불 경쾌한 물결을 그리며 튀겨진 면발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고속 포장 기계를 거친 라면들이 붉은색 봉지에 담겨 1분당 600개 이상의 속도로 눈깜짝할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농심의 첫 수출 전문 공장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이 쉼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K라면 글로벌 전초기지' 그 자체였다.

이곳은 농심이 오직 글로벌 수출만을 겨냥해 세운 생산기지다. 지상 6층, 연면적 4만 8178㎡ 규모의 기존 부산공장 부지를 탈바꿈시켜 조성했다. 봉지면 2개, 용기면 1개 등 총 3개 라인이 먼저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곳에서만 연간 5억 개의 라면이 생산된다.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최대 8개 라인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농심 녹산수출전문공장에서 신라면이 생산되고 있다. /농심

부산에 K-라면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ERP 시스템·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최종검수도 AI 딥러닝… 오차 줄여
품목교체 4분의 1 단축·생산성 18%↑

年 5억개 생산… 국내 수출역량 12억개
다양한 제품 공급 '듀얼코어 전략' 가동

히트작 신라면 툼바 등 해외매출 상승
내년 볶음면 출시… 신시장 개척 나서

◆AI와 로봇이 이끄는 첨단 스마트 팩토리

녹산공장의 최고 무기는 단연 스마트 기술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이 생산 지시를 내리면 작업자의 손길 없이도 설비가 알아서 세팅된다. 공장 내부를 들어서면 기계의 미세한 진동과 전류 흐름을 실시간 감지하는 '예지보전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한다. 기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고장으로 인한 멈춤 현상을 미리 막아낸다.

포장 라인에서는 마그네틱 이송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쾌속으로 지나가는 제품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복도 한편에서는 바닥 센서로 경로를 짚어내는 자율주행로봇(AMR)이 바쁘게 자재를 날랐다. 별도의 바닥 유도선 없이 센서만으로 이동 경로를 찾아 포장재 등 각종 자재를 생산라인에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다. 완성된 제품의 최종 검수 역시 AI 딥러닝 기술이 맡아 오차를 줄인다. 이같은 첨단 설비 투자는 생산 효율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품 종류와 생산 물량에 따라 라인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 교체 시간도 기존 국내 공장 대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볶음면과 용기면, 비건 제품 등 국가별로 세분화되는 글로벌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윤열 녹산공장장은 "AI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인력 감축이 아닌, 현장 근무자가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AI 기술 적용으로 전체 생산성이 약 17~18%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수출 제품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도 갖췄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도 확보했다.

◆'듀얼코어' 전략으로 신시장 공략

녹산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농심의 국내 수출 전초기지 생산 역량은 기존 부산·구미공장의 7억 개에 5억 개가 보태져 연간 12억 개로 늘어났다. 미주 및 중국 현지 공장과 국내 내수 물량까지 더하면 농심의 전체 생산능력은 최대 62억 개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과 중국 시장은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일본·호주·인도 등은 국내 수출 체제로 대응하는 '듀얼코어(Dual-Core)'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번 녹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주로 일본과 신흥 시장으로 공급된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에는 신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현지 법인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중동에서는 신규 유통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주요 거래선을 확보하는 한편, 빠른 배송을 앞세운 퀵커머스 채널 공략에도 나선다. 인도 시장의 경우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농심의 최근 해외 성적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71%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히트작으로 자리 잡은 '신라면 툼바'는 해외 누적 판매량 1억 4700만 개를 돌파했으며, 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 등 일본 3대 편의점 매대에도 상시 판매 제품으로 당당히 입점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넓힌다. 신라면 툼바와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볶음면 제품을 앞세우고 팝업스토어와 캠퍼스 투어를 통해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심은 비국물면을 향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내년 1분기 신개념 볶음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통 망도 호주 메인 매대 진출, 인도·중동 퀵커머스 공략, 서남아시아·유럽 등 신시장 개척으로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다.

지송하 글로벌마케팅부문장은 "2030년까지 매출 7조 3000억 원, 해외 매출 비중 6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라며 "K-라면의 대명사 신라면이 가진 '행복의 맛'을 더 많은 세계 소비자들이 일상 속 첫 경험과 나만의 레시피로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 부산 녹산 수출전문공장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규모	연면적 4만 8178m², 지상 6층
생산라인	총 3개 라인 가동 *최대 8개 라인 확대 가능
생산규모	연간 라면 약 **5억개** 생산
특징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스마트팩토리



농심 녹산수출전문공장 외부 전경.

농심 녹산 수출전용공장에서 포장된 신라면이 생산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최강' 안세영, 코리아오픈 정상 탈환…시즌 11승·55연승·승률 98.6%
▲삼성, 한국시리즈 5차전서 KT 12-1 완파…통산 9번째 우승 /사진 뉴시스
▲백승호 두 달 만에 부상 복귀…버밍엄, 엄지성 선발 뛴 스완지 제압
▲피겨 이해인, 시즌 첫 그랑프리서 역전 동메달…트리플 악셀도 성공
▲"K-브랜드 호주서 알렸다" 현대百, 멜버른 한류박람회에 1만명 방문
▲"금값 다시 꿈틀"…주얼리 중고매물 쏙 들어갔네